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 함께 해결



1 가상공학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 관계자들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신소재 물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2 4단계 자율주행셔틀버스가 일반인 대상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빅픽처스-건설기계 시뮬레이터 활용 실습 교육훈련

우리 경제와 산업이 당면한 화두는 '변자생존(變者生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불확실한 싸움,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화'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기에도 중단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라인화, 비대면화해야 한다. 마침 정부의 움직임도 구체화했다. 경제 위기 극복 및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그 첫 번째 과제로 디지털 뉴딜을 제시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석영철)은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돕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기업 친화적인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에 나선다. 기업 혼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필요한 역량을 모두 갖추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이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환경을 초기에 탄탄하게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산업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며, 규제 프리 생태계 조성, 디지털 엔지니어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KIAT는 먼저 주요 업종별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제품의 기획-연구개발-생산-마케팅 등 다양한 밸류체인 단계에 걸쳐 파생되는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표준화해 여러 기업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바이오, 소재, 전기차 부품을 포함해 총 5개 산업 분야 데이터 플랫폼을 시범 구축했으며, 2021년부터는 시험인증, 유통데이터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IAT가 운영하는 공공기술정보 플랫폼(국가기술은행·NTB)과 연구장비정보 플랫폼(e-Tube), 소재 은행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도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디지털 리터리시(디지털 기술을 다루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강력한 정책을 내놓고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써먹을 수 없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AI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석·박사 고급 인력 배출은 물론이고 기존 재직자나 퇴직자들도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역량을 기를 수 있게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도 제공할 방침이다. KIAT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최소 1천명의 디지털 엔지니어를 양성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영철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물결을 외부의 일시적 위협 요소로만 인식한다면 떠밀려 하는 혁신이 될 것"이라며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하려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석 원장은 "디지털 혁신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을 측면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